

2025년 12월 나나이모원주민교회 선교편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원주민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신 기도와 사랑의 동역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주를 보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 비씨주 북부와 유콘주 교회 재건을 향하여

지난 9월, 2주간 왕복 8,000km에 이르는 비씨주와 유콘주 교회 탐방여행을 동역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잇따른 5번의 타이어 평크 등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각 지역 소도시를 방문하면서 캐나다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였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과 교회 회복의 비전을 더욱 선명히 보았습니다.

130여년전 먼 조선땅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하던 캐나다의 교회, 특히 원주민교회는 성도의 감소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목회자의 부재로 몇몇 성도님들이 명맥만 유지하다가 흩어지고 교회문이 닫혀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탐방여행을 통해서 파악된 비씨주 북부 휴스턴교회, 뉴해즐튼 지역 5개 교회 및 유콘주 다슨시티교회 등 총 7개의 교회에 10가정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재건하려 합니다. 특히 뉴해즐튼 지역 5개교회를 위한 목사관 구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나이모에서 시작된 원주민 선교가 밴쿠버섬 북부로, 또 북부 비씨주와 유콘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감을 봅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하보다 귀한 원주민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동역할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뉴해즐튼 지역교회 원주민 성도님들과



북극해 앞에서 정팀과 함께



정탐여행 중 연이은 타이어 파손 현장



휴스턴교회의 재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현지 성도님

2) 나나이모원주민교회 소식

나나이모에서도 힘찬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원주민 및 푸드뱅크를 통해 연결된 분들을 초대하여 Thanksgiving 커뮤니티 디너와 헤어, 네일, RMT마사지, 가족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월 23일은 원주민선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특별 중보기도시간을 가졌고 12월 13일에는 각 원주민마을과 가정을 방문하여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교회로 초청하는 대심방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1일은 성탄축하감사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연합 그림자극과 어린이 워쉽댄스, 유스밴드 특송, 오토하프연주 및 여성그룹합창 등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탄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11월 어린이부서에서 청소년이 분리되어 Youth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매 주일 1시 본당에서 10~20여명의 청소년, 청년이 모여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주민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당 양희선 전도사님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지도아래 예배와 찬양밴드, 대그룹과 소그룹을 병행하는 청소년 맞춤 신앙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나이모원주민교회에서 자라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안에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 나나이모원주민예배 추수감사예배



네일 아트를 받는 성도



나나이모원주민교회 Youth예배 설교를 듣는 청소년



Youth예배 후 소그룹 모임



이사한 원주민 환우 심방 및 청소 섬김



예배 후 공동체 훈련 중인 나나이모원주민교회 다음세대

3) 포트하디 소식

포트하디에서는 원주민 청소년 목요 모임에 꾸준히 출석하는 아이들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아이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어 예배와 교제가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 지길 소망하며, 다음 단계를 위해 동역할 예비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원주민 청소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장식된 공원에서 정성껏 준비한 쿠키와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과 열린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콰치노(Quatsino) 지역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밴드 오피스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예배 처소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트 루퍼트에서는 Door to Door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가정씩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 예배로 연결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생명이 움트는 옥토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트하디 원주민 청소년 목요 예배 후



공원에서 성탄축하모임중인 포트하디 청소년



수채화로 그린 포트 루퍼트 교회 전경



성탄모임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수제 쿠키



4) 글래드타이딩스교회 소식

지난 여름 교회재건 팀을 통해 보수된 교회 베이스먼트가 귀한 사역의 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체 식사뿐만 아니라 동네 어린이 생일 잔치 장소로 개방하여 이웃과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특히 '윌리안 & 리키샤' 가정 등 원주민 이웃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도 사용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도 2박 3일간 발전기 배선 작업과 온풍기 및 온열기 설치를 완료해 주신 덕분에 겨울철 예배실과 사역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따뜻한 동역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성탄 주일에는 칠면조 요리로 마을 가정들을 초청해 축하 예배를 드렸고, 성탄절 당일에는 불고기와 김밥 등 한국 음식을 나누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한국의 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보수된 글래드타이딩스의 시설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추운 겨울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사역 현장에 성령의 온기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보수된 베이스먼트에서 식사교제중인 원주민 성도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공사를 마친 후



정성껏 준비한 성탄절 식사와 어린이 선물



따뜻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6) 서삼선 목사님 부임과 153선교회(153Mission Society) 출범

서삼선 목사님께서 11월 나나이모원주민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파라과이를 4년간 섬기시고 시카고에서 23년간 담임목사로 역임하신 서삼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캐나다 원주민을 가슴에 품고 나나이모에 합류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풍성한 선교 및 목회 경험과 영혼을 끌어안은 뜨거운 목자의 마음을 통해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나이모원주민교회는 전문적인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한 153선교회(153Mission Society)를 출범하여 사역의 지평을 열어가려 합니다. 다음 소식지부터 153선교회의 이름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가득 차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153선교회가 섬기는 자리마다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수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6~11)



서삼선 목사님과 서용숙 사모님

153 선교회 발대식 및 송년회



송년회 후 밴쿠버섬 북쪽 사역팀과 함께



153 선교회 발대식날 보여주신 선명한 무지개

7)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나나이모원주민교회에 제2의 부흥을 주소서
2. 포트하디 콰살라, 콰치노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소서
3. 글래드타이딩스교회에 전세대 부흥을 주소서
4. 비씨주 북부와 유콘주에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시고 물적, 인적 자원을 채우소서
5. 원주민 다음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소서
6. 북미 원주민선교센터를 설립하사 전략적 선교가 되게 하소서
7. 밴쿠버섬 53개 원주민 부족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 담임 조혁준 목사 (Joon Cho)
- 나나이모원주민교회 담당 및 교육총괄 지용주 목사 (Joy Ji)
- 나나이모원주민교회 성인 담당 정태웅 목사 (Phillip Chung)
- 나나이모원주민교회 청소년 담당 양희선 전도사 (Sullivan Yang)
- 포트하디 지역 담당 김경남 목사 (Chris Kim)
- 글래드타이딩스교회 담당 김영화 목사 (José Kim)
- 글래드타이딩스교회 교육부 담당 강효경 목사 (Sarah Kang)
- 비씨주 북부 및 유콘주 담당 벤자민 정 목사 (Benjamin Chung)
- 밴쿠버섬 담당 서삼선 목사 (Sam Suh)
- 원로목사 Rev. Per & Chris Knudson

Nanaimo Native Victory Church

Office #: (250)754-7866, Email: office.nnvc@gmail.com
471 Irwin Street Nanaimo, BC, V9R 4X9
Charity #: 107759094RR0001